

‘인성 교육의 장’ 백석대학교 2022년도 신입생 모집



곽노운 입학관리처장

백석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교육정신 아래 ‘혁신적 지성·글로벌 소통·실천적 섬김’의 역량을 갖춘 미래형 TOP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백석대는 신입생 예비대학, 평생담임교수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백석멘토링), 우수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리딩 클래스(Leading Class) 운영, BU-TOP 인증제 등을 통해 ‘된 사람’

의 인성교육과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혁신 지원사업, 해외취업 연수사업(K-MOV E스쿨),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선정됐다. 특히 2020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지능형 블록체인 응용 협약과정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지능형응용 SW, 5G 기반 디지털 팜, 모션그래픽스, 글로벌호텔리어, 지능형 블록체인 응용 등 총 5개의 협약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인성은 물론, 글로벌 역량, 창의 융합역량, 전공직무역량이 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석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2천534명, 정원 외 18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교과전형으로 일반전형,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전형, 지역인재1전형이 있고, 학생부 60%, 면접 40%로 선발하는 백석인재전형이 있다.

학생부 교과 영역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 반영 비율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사회(국사 포함)·과학 교과 중 상위 15개 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창의인재전형 299명, 지역인재2전형 47명)을 모집한다. 모든 전형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백석대는 정원 내에서 일반전형 1천58명,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전형 168명, 지역인재1전형 210명, 백석인재전형 723명, 창의인재전형 299명, 지역인재2전형 47명, 체육특기자 29명을 선발한다.

수시 원서접수는 9월 10일(금)부터 9월 14일(화)까지 받는다. 면접·실기고사는 수능일 이전인 10월 15일(금)부터 10월 23일(토)까지 진행한다. 백석대는 2022학년도 13개 학부 51개 전공에 걸쳐 정원 내·외 총 3천17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백석대는 수도권 1호선 전철로 통학이 가능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9개 지역에서 매일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기숙사는 현재 1천75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곽노운 입학관리처장은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백석대학교는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학교생활 적응과 향후 취업을 위한 멘토링제를 실시 중”이라며 “신입생들이 대학교 입학에서 졸업 후까지 담임교수 및 담임목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껏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백석대학교 전경

더 강공내전



2022년 수시 신입생 모집
2021.09.10(금)~2021.09.14.(화)

디자인영상학부 2015학번 송나라 학생 공모전 선정작